**야타케 트레킹 코스**

이 코스는 운젠 온천가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산 중 하나인 야타케(971m)로 가는 길입니다. 북동쪽에서 본 모습이 삼각형 화살처럼 보인다 하여 야타케(矢岳)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탄생한 지는 15만 년이 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길에는 운젠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산 상층부는 삼나무, 편백나무, 산딸나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층부에는 꽝꽝나무, 제룸벳 진저, 그리고 유명한 미야마키리시마(규슈의 진달래꽃)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운젠의 숲은 들새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휘파람새, 박새, 황금새 등 다양한 새소리를 산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에서는 현존하는 일본에서 2번째로 오래된 운젠 골프장의 멋진 전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타케의 머리 위로는 노다케(1,142ｍ), 묘켄다케(1,333ｍ), 헤이세이신잔(1,483m)이 북쪽으로 높게 솟아 있습니다. 야타케의 정상 부근에서는 가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온천의 유황 냄새가 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북서쪽으로는 다치바나완, 동쪽으로는 아리아케카이의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